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Hush」에 대한 연구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손 영 빈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Hush」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Hush」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손 영 빈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Hush」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Hush」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손 영 빈

손영빈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박 재 홍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정 석 순 (인)

국 문 초 록

무용 작품「Hush」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손 영 빈

본 논문은 사회적 문제인 가짜뉴스를 주제로 거짓에 현혹되고 선동당하는 탈진실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표현한 무용 작품「Hush」에 대한 연구·분석이다.

우리는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탈진실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사실과 상관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뜻한다.

미디어가 일상 깊이 스며든 현 사회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가장 공신력 있어야 할 뉴스조차 거짓된 정보라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정치·사회적 현상을 넘어 소규모 집단 사이에서도 거짓을 전하며 갈등을 부추긴다.

이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큰 상실과 갈등, 무책임한 피해를 남긴다.

무용 작품「Hush」는 본 연구자의 이러한 사회 문제 인식에서 파생되어 탈진실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확증 편향된 사고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거짓보다 진실이 힘을 가진 세상이 오길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작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품을 창작하였고, 소품의 위치, 모양, 무용수들의 움직임 상태와 음악의 변화를 따라 도입부를 포함한 총 5장의 장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해석하는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무용수가 각기 다른 캐릭터를 연구하여 장면을 구성하였고, 작품의 주제인 뉴스를 시각적 이미지로 연출하기 위해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을 가짜뉴스,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 마지막 장면에서의 진실을 상징하는 오브제 및 무대 세트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현재 사회에서 대중들의 의식 속에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진실을 외면했을 때의 파급력과 그 피해는 자신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작품「Hush」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주요어】 가짜뉴스, 거짓 정보, 선동, 현혹, 유포, 확산, 진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이론적 배경 ····· 4

2.1 탈진실 ····· 4

2.1.1 탈진실과 가짜뉴스의 연관성 ····· 4

2.2 확증편향 ····· 6

2.2.1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연관성 ····· 6

2.3 가짜뉴스 ····· 8

2.3.1 가짜뉴스 사례 ····· 9

2.3.2 가짜뉴스 해결 방안 ····· 10

2.4 가짜뉴스 관련 현상 ····· 11

2.4.1 황색 언론 ····· 11

2.4.2 인포데믹 ····· 12

Ⅲ. 무용 작품「Hush」에 대한 연구 ····· 13

3.1 작품형식 및 구조 ····· 13

3.2 작품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 15

3.2.1 움직임 표현 방법 ····· 15

3.2.2 의상 ····· 18

3.2.3 조명 ····· 23

3.2.4. 음악 ····· 25

3.2.5 소품 ····· 27

Ⅳ. 작품 분석 ····· 30

4.1 도입부 & 1장 ····· 32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 32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2
4.1.3 음악과 조명 ····· 34
4.2 2장 ····· 36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 36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6
4.2.3 음악과 조명 ····· 38
4.3 3장 ····· 40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 40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40
4.3.3 음악과 조명 ····· 42
4.4 4장 ····· 44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 44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44
4.4.3 음악과 조명 ····· 46

Ⅴ. 결 론 ····· **48**

참 고 문 헌 ····· **50**

부 록 ····· **55**

ABSTRACT ····· 58

표 목 차

[표 3-1] 작품 구성 ····· 14
[표 3-2] 작품 속 무용수들의 캐릭터 ····· 16
[표 3-3] 색체의 상징적 의미 ····· 21
[표 3-4] 음악 구성 ····· 25
[표 4-1] 1장 조명 분석 ····· 35
[표 4-2] 2장 조명 분석 ····· 39
[표 4-3] 3장 조명 분석 ····· 42
[표 4-4] 4장 조명 분석 ····· 46

그 림 목 차

[그림 3-1] 무용수 1 의상 ····· 19
[그림 3-2] 무용수 2 의상 ····· 19
[그림 3-3] 무용수 4 의상 ····· 19
[그림 3-4] 무용수 3 의상 ····· 20
[그림 3-5] 무용수 3 의상 2 ····· 20
[그림 3-6] 나무 합판 ····· 27
[그림 3-7]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 ····· 27
[그림 3-8] 2장에서 사용된 소품 ····· 28
[그림 3-9] 3장에서 사용된 소품 ····· 28
[그림 3-10] 4장에서 사용된 소품 ····· 29
[그림 3-11] 돼지 가면 ····· 29
[그림 3-12] 무용수 1 착용 모습 ····· 29
[그림 4-1] 가짜뉴스 생산자 ····· 33
[그림 4-2] 가짜뉴스를 보는 사람들 ····· 33
[그림 4-3]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 1 ····· 33
[그림 4-4]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 2 ····· 33
[그림 4-5] 무용수 조명 기호 ····· 34
[그림 4-6] 가짜뉴스 유포자 ····· 37
[그림 4-7]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사람들 ····· 37
[그림 4-8] 파도처럼 불어나는 가짜뉴스 ····· 37
[그림 4-9]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 ····· 37
[그림 4-10]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 41
[그림 4-11] 마주한 진실 ····· 41
[그림 4-12] 진실을 깨달은 후 공허한 감정 ····· 41
[그림 4-13] 혼란스러운 감정 ····· 41
[그림 4-14] 반복되는 가짜뉴스 ····· 44
[그림 4-15] 가짜뉴스 피해를 막으려는 사람들 ····· 44

[그림 4-16] 선동된 사람을 막는 장면 ····· 45
[그림 4-17]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 ····· 45

Ⅰ. 서 론

본 논문은 가짜뉴스를 주제로 제작한 무용 작품「Hush」에 대한 분석이며, 작품 주제와 연관된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품 속 연출과 표현 방법에 대입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진행한 연구이다.

현재 사회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언론의 역할이었던 뉴스 생산이 누구나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사실 검증 절차 없이 정보수용자에게 전달된다.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62%가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확인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71%는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왔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Mclntyre, 2019).

또한, 미국 성인의 44%는 YouTube를 통해 뉴스를 접하며,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독자들은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만을 읽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 '가짜뉴스'가 보다 자극적이고 흥미롭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엄청나게 공유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최영준, 2018).

본 연구는 연구자가 느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과 혼란에서 파생되었으며, 가짜뉴스에 의한 영향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갈등, 혐오,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를 낳는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 83.7%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6%가 동의한다고 답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진짜 뉴스를 볼 때에도 가짜인지를 의심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3/4이 넘는 약 7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짜뉴스 때문에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뉴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오세욱, 박아란, 2017).

연구자가 바라본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짓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점점 더 관대해지고, 그 피해에 있어 공적 분노를 표출하거나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가짜뉴스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만큼 이름을 올린 유명인으로서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2]

왜곡된 정보들이 사실 인양 급속도로 퍼지는 현 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신뢰하고, 비난하며,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때 무책임하게 침묵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며, 거짓 정보에 대한 인식과 분별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무용 작품「Hush」를 창작·연구 하였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조지 오웰-[3]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뒷받침할 근거로 탈진실, 확증편향, 황색 언론, 인포데믹과 같은 사회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제와 연관된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미지와 키워드를 통해 움직임을 채집하여 작품「Hush」에 투영함으로써 작품표현의 당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작품「Hush」에서는 거짓에 현혹되고, 선동당하는 사람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짓의 유포, 반복되는 가짜뉴스와 피해 속에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도입부를 포함한 총 5장의 장면으로 전달한다.

---

1)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 (2017).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92&contents_id=000344023C8E93770EE46E9CC7842BB4.

2) 황재하, (2023.12.03.), [뉴팬데믹! 가짜뉴스], 연합뉴스

3) 조지 오웰 . (20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8656&cid=44546&categoryId=44546.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무용수가 각기 다른 캐릭터로 장면을 구성하였고, 무용수들의 캐릭터는 각 장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 생산자, 가짜뉴스의 현혹되는 사람들, 대중으로서의 유포자,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 또다시 반복되는 가짜뉴스에도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로 역할을 나누었다.

또한, 뉴스라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을 오브제 및 무대 세트로 활용하였으며, 나무 합판의 위치, 모양의 변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음악의 변화에 따라 작품이 진행된다.

본 연구자는 가짜뉴스에 의해 더 이상 누군가 고통받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에 대한 피해는 가짜뉴스의 직접적인 희생양은 물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중으로써 우리는 '진실성' 자체를 판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거짓보다 진실이 힘을 가진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탈진실

세계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로 가고 있다. 탈진실이란 여론의 형성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의 호소나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염정윤, 정세훈, 2017).

탈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적 상황을 의미한다. 탈진실 현상이 확산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과학적 지식마저 편향적인 감정과 신념에 의해 의심되고 부정된다. 또한 탈진실 현상은 오늘날 사회 내의 정체성, 집단 간의 극단적인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반지성주의와 극단적 자치주의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발현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송정민, 김범수, 이병재, 2023).

탈진실 현상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관되어 폐쇄된 원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회구성원의 이행 혹은 변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불가능성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위험하다(허의진, 2022).

2.1.1 탈진실과 가짜뉴스의 연관성

가짜뉴스는 탈진실 시대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가짜뉴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거짓 정보가 유통되고 수용된다는 것을 넘어서 탈진실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탈진실 현상은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기술과 변화하지 않는 인간 인지능력 간에 생겨나는 격차가 배경이다. 이를 이용해 정보기술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구본권, 2020).

〈사피엔스〉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하라

리는 “1000명의 사람이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간 믿으면 가짜뉴스이지만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종교다”라고 예시한다. 하라리가 말하는 허구는 달리 말하면, 개념이자 사고방식이다. 다른 동물들이 감각적 실제만을 인식하고 고려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비 감각적 개념을 실제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인식과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4)]

(이명미, 2023)는 탈진실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 “다양한 매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대중은 그러한 매체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며,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판단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진 듯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조차 믿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현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4) 포스트휴먼과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현상은 왜 문제일까 . (2020). https://horizon.kias.re.kr/14449/.

2.2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란,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 혹은 선호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무의식적인 인지과정이다(이예경, 2012; Nickerson, 1998).

인간은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계속 믿기 위해 반증 증거를 도외시하는 대신, 믿음을 확인 해주는 증거만 찾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에 자신을 더 노출 시키려는 성향이다. 이때 자신의 입장과 일관된 정보를 더 빈번히 접하게 되면 가설은 진위와 상관없이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이예경, 2012; Sears, Freedman, 1967).

하트 외(안도현, 2020; Hart et al., 2009)는 사람들이 기존 태도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선택적 노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한 67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존의 태도, 신념, 그리고 행위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택할 가능성보다 거의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현, 2020).

2.2.1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연관성

확증편향을 가짜뉴스 맥락에 적용하자면 주류 언론의 보도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방어하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염정윤, 2018). 이때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는 가짜뉴스에 노출되면 뉴스의 진위여부에 대해 숙고하기보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염정윤, 정세훈, 2017).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정보원의 우호도와 관계없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 우호적 정보원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정윤, 정세훈,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짜뉴스를 접할 때 편향된 사고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확증편향은 가짜뉴스와 일반적인 뉴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짜뉴

스에 대한 개인의 확증편향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진위 구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최창식, 2021).

나아가 사람들이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는 '감정과 개인 신념에 대한 호소'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진위 여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박진우 2019; Van Aelst, 2016). 만약 이런 정보 환경 내에 가짜뉴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입된다면 사람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상을 인지하고(박진우 2019; Week, Garrett, 2015),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상이한 태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박진우 2019; Kuklinski, Quirk, Jeris, Schwieder & Rich, 2000)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박진우, 2019).

2.3 가짜뉴스

가짜뉴스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페이크뉴스(Fake News)'라고도 한다.[5)]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허위 정보 사례는 많았으나 과거에는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포할 기술적 수단이 없었을 뿐이다.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라는 기술적 발전은 허위 정보 확산 위험을 증폭시켰으며, 현대사회에서 허위 정보는 정부에 의한 '정보의 무기화' 및 사기업에 의한 '정보의 오용' 측면에서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박아란, 2019).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자유롭게 유포할 수 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소수의 언론사만이 '언론'으로 여겨지거나 언론사에 고용된 사람들만이 '기자'로 불리던 시대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처럼 언론 개념이 해체되고 뉴스를 습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변화된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가짜뉴스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다(박아란, 2019).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황용석, 권오성, 2017)에 따르면 2016년 8월에서 10월까지 페이스북 공유량을 분석한 버즈피드의 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공유된 가짜뉴스 상위 20건은 871만 1000번의 공유 및 댓글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가장 많이 공유된 언론사 뉴스 상위 20건의 공유 및 댓글 736만 7000번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가짜뉴스의 전파력을 보여준다. 가짜뉴스는 용어만으로 보면 저널리즘 현상 같지만, 실제로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공유 및 댓글 숫자로 나타난 이 같은 대중의 호응은 가짜뉴스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일종의 정치 사회적지지 행동 또는 집단행동까지 발전할 조짐을 보여준다.(황용석, 권오성, 2017)

---

5) 가짜뉴스. (n.d.).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6539&cid=43667&categoryId=43667.

페니쿡과 캐넌, 그리고 랜드(박진우, 2021; Pennycook, Cannon, & Rand, 2020)는 가짜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수용자들이 사실로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검증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제공하는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그릇된 신념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가짜 정보가 기존 신념과 조응하면 허위 지각 현상이 더욱 증폭되며,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허위 지각을 강화하기도 한다(박진우, 2021; Nyhan & Reifler, 2010). 이는 점점 극단적인 태도 형성으로 나아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런 극단적 태도가 가짜뉴스의 노출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신념일 때는 이런 부정적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박진우, 2021).

2.3.1 가짜뉴스 사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는 감염병, 전쟁과 같은 허위 정보를 통한 사회적 공포감 조성, 정치, 경제적 양극화, 인종차별, 난민 혐오를 불러일으키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가짜뉴스의 역사가 14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이탈리아의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두 돌 반 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프란치스코회의 한 수도사 유대인이 아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그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설교를 하며 거듭 퍼뜨렸다. 이 이야기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당시 트렌트의 왕자이자 주교였던 요하네스 힌더바흐 4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분노하여 시의 모든 유대인을 체포해 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이야기는 다른 인종 집단으로 하여금 비슷한 잔인무도한 일을 유대인을 상대로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빌미가 되었다(권오성, 2017).

가짜뉴스가 특정 국가나 특정 사회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슬람국가(IS) 테러의 계기가 된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조작된 정보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음에 따라 '정당한 전쟁'으로 합리화되었고, 프랑스와 덴마크, 독일 등이 이라크 침공에 반발했으나 무시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라크는 대량 살생 무기를 보유했고, 알카에다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연계됐으며, 세계인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문소영, 2020). 하지만 2004년 10월 미국과 영국의 조사단은 "이라크 대량 살생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2003년 언론이 미국 정부의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해 오보를 한 것이 되었다. 문제는 그 오보에 근거해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는 것이다(문소영, 2020).

또 다른 가짜뉴스 사례로 악명 높은 '드레퓌스 간첩 사건'이 있다. 이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진 프랑스 정부는 전쟁 패배의 후유증을 무마하고자 1894년 프랑스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유대계 포병대위 A. 드레퓌스가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해 종신형을 구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발생 12년 만인 1906년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당시 유대인 혐오에 편승한 것으로 권력이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주었다(문소영, 2020).

2.3.2 가짜뉴스 해결 방안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뉴스 생산자의 책임성과 뉴스 매개자의 책임성 그리고 뉴스 소비자의 감시가 같이 이루어질 때 가짜뉴스를 막아낼 수 있다.(최영준, 2018). 2017년 국내 대선 과정 중에 일부 언론사에서 뉴스 시간 일부를 할애하여 가짜뉴스의 내용을 검증하는 뉴스를 내보낸 사례처럼 가짜뉴스 평가단을 선정하여 가짜뉴스 적발과 시정을 위한 시청자 고발,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공익 광고나 공익 캠페인, 국민들이 신뢰성이 담보된 뉴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 피해를 경험한 각국의 사례와 대응 방안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할 필요도 있다.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진실 추구를 넘어 혼돈과 대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최영준, 2018).

가짜뉴스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빠른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접하는 개인의 의식과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뉴스 이용자 스스로 가짜뉴스를 신뢰하지 않고 걸러내어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정학구, 2020).

2.4 가짜뉴스 관련 현상

2.4.1 황색 언론

옐로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황색 언론이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범죄, 희한한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일컫는다. 옐로저널리즘은 미국의 신문왕 조지프 퓰리처와 언론재벌 윌리엄 허스트에 의해 탄생했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라고 믿는 한편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흥미와 오락 위주의 일요판 신문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옐로저널리즘'을 탄생시켰다. 퓰리처는 1889년에《뉴욕월드》일요판에 황색 옷을 입은 소년 "Yellow Kid"를 게재했는데 당시 경쟁사인 허스트의《뉴욕저널》과 선정주의로 과대한 경쟁을 함으로써 옐로저널리즘이란 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6)]

(선혜윤,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황색 저널리즘은 1990년대 스포츠 신문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제한된 수요의 신문시장에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소프트 포르노그라피(soft pornography)를 선보였고, 21세기에 들어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포털에 연예 기사를 공급하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사실만을 보도하지 않고, 각종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며 네티즌의 댓글 문화와 더불어 황색 저널리즘을 선도하게 되었다(선혜윤, 2018; 김선남 외, 2003; 양기민, 2005).

---

6) 황색 언론 . (20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50853&cid=58190&categoryId=58190.

2.4.2 인포데믹

정보전염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포데믹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위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과 같은 IT 기기나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근거 없는 공포나 악소문을 증폭시켜 사회,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7)]

인포데믹은 질병, 재난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이슈의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지나치게 커지는 특징을 보이며, 의도와 관계없이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정보가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타고 사회적으로 대량 확산됨으로써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낳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와 함께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에 의해 확산되며, 동일한 정보가 반복 보도됨으로써 "물결효과(ripple effects)"를 초래해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 이처럼 인포데믹은 가짜뉴스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정보의 과잉화에 따라 인지 과부하를 유발함으로써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이완수, 2021).

---

7) 인포데믹스.(201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3422&categoryId=58479&cid=42171.

Ⅲ. 무용 작품「Hush」에 대한 연구

3.1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의 작품「Hush」는 가짜뉴스를 주제로 탈진실의 사회 속에서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무용창작 작품으로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거짓 정보를 분별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분석 및 연구하여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작품에 투영시켰으며, 움직임과 연출적 표현 방법을 다 각도로 연구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작품을 보는 이들이 작품 내 배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무용수들의 캐릭터를 각기 다르게 부여하여 작품을 풀어내었다.

가짜뉴스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을 작품의 주된 소품으로 활용하여 합판의 위치, 모양 변경과 같은 다양한 무대 연출을 통해 무용수들의 움직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음악, 조명, 무용수들의 상태에 따라 장면이 전환된다.

「Hush」는 도입부를 포함한 총 4장의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면의 이해를 돕고자 각 장면의 구성과 특징을 〈표 3-1〉로 정리하였다.

[표 3-1] 작품 구성

장면	이미지	표현 방법	시간
도입부	가짜뉴스 생산자	돼지 가면을 쓴 무용수가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 위에서 선동하는 이미지와 제스처로 가짜뉴스 생산자를 표현한다.	2분
1장	가짜뉴스에 현혹된 사람들	무용수들이 나무 합판을 따라 걸어 나오고 합판 위에서 행해지는 듀엣, 솔로를 통해 앞선 선동에 따라 가짜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을 표현한다.	4분
2장	대중으로서의 가짜뉴스 유포자, 불어나는 거짓 정보 속 대중들	두 명의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표현하고, 이어서 세 명의 무용수로 확장되어 소품 활용과 함께 불어나는 가짜뉴스를 표현한다.	약 5분
3장	마주한 진실	무대 중앙을 '진실을 마주하는 곳'으로 의미를 두어 무용수들의 동선 이동, 소품을 겹쳐 책 모양으로 펼침으로써 진실을 보는 창에 의미를 소품에 투영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3분
4장	반복되는 가짜뉴스에도 중립을 지키고 진실을 보려는 사람들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무용수의 의상을 환복하여 무용수 역할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고, 나무 합판으로 무용수를 가림으로써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동요되지 않고,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다.	3분

3.2 작품 구성요소 및 움직임 표현 매체

3.2.1 움직임 표현 방법

무용 작품「Hush」는 현대무용 테크닉을 기반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무용수들의 솔로, 2인무, 3인무로 구성되었다. 무용수 4명이 다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용 움직임보다 행위, 시각적 표현에 중점을 두어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고, 소품, 조명, 음악, 의상의 변화, 무용수들의 상태와 동선 변화에 따라 작품이 진행된다.

「Hush」에서는 나무 합판이라는 소품을 그저 바닥에 두거나 세우는 등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품을 활용하고자 합판의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의 홍수 즉, 파도를 형상화하여 무대 세트로서의 효과와 더불어 범람하는 가짜뉴스 현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휘어진 합판 안으로 무용수가 지나다니는 행위를 통해 정보의 홍수에 휘말리는 대중을 표현하였다. 또한 합판 4장을 겹쳐 세로로 세워 펼침으로써 책이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이에 대한 의미는 작품 내에서 가짜뉴스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창을 의미한다.

작품「Hush」는 연구자를 포함한 총 4명의 무용수가 출연하였으며, 작품의 흐름과 의미 전달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무용수들의 캐릭터를 나누었다.

무용수들의 캐릭터는 작품 안에서 각 장면과 무용수 등장 순서에 따라 다음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2] 작품 속 무용수들의 캐릭터

장면	무용수 캐릭터
도입부	무용수 1: 가짜뉴스 생산자, 선동자
1장	무용수 2, 3, 4: 앞선 선동을 따라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들
2장	무용수 1, 4: 시민으로서의 가짜뉴스 유포자 무용수 2: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가짜뉴스를 따라 선동되는 사람
3장	무용수 1, 2, 4: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
4장	무용수 3: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또다시 현혹되는 대중 무용수 1, 2, 4: 중립을 지키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

위와 같이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현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 장면의 이해를 돕고,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거짓을 분별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도입부에서는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써 관객들의 집중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무용수 1이 돼지 가면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가짜뉴스 생산자로서 대중을 선동하는 익살스러운 제스처와 움직임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이는 역사

상 최악의 선동가였던 요제프 괴벨스[8]의 대중 연설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자의 해석으로 창작하였다.

1장에서는 앞선 무용수 1의 선동을 따라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을 표현하기 위해 무용수 1과 무용수 2, 3이 교차 되어 등·퇴장 하고, 무용수 2, 3이 합판 위를 걸어 나와 손으로 눈을 가리는 행위와 접촉 움직임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어서 합판에 시선을 고정하여 움직이는 무용수 2, 4의 솔로 움직임이 이어진다. 가짜뉴스를 의미하는 합판과 무용수들의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바닥에서 움직이는 (Floor Movement)를 주로 하여 뉴스를 읽어 나가는 대중의 모습을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 질감으로 표현한다.

2장에서는 현대무용 테크닉인 회전(Turn), 한 다리로 짧게 도약하는(Skip), 위로 뛰어오르는(Hope), 바닥에서 미끄러지는(Sliding) 위주로 움직임을 연구하였고, 무용수들에게 대중으로서의 유포자라는 역할을 부여하여 다이나믹한 에너지와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를 표현하였다. 이어서 가짜뉴스에 휘말리는 대중을 표현하기 위해 3인무로 무대를 확장하였고, 합판을 중심으로 구르고, 무너지는 행위를 통해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대중들을 표현한다.

3장에서는 가짜뉴스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무대 상수에서 정중앙으로 동선을 이동하여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강조한다. 소품을 책 모양으로 펼쳐 진실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무게 중심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drop과 팔을 휘두르거나 순간적으로 치는 상체 움직임, Floor Movement를 주로 하여 무용수들의 고조되는 감정을 표현한다.

4장에서는 무용수 3이 합판을 들고 시선을 합판에 고정한 채 걸어 나오는 행위를 통해 반복되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표현하였다. 이어서 무용수 1, 2, 4가 소품으로 무용수 3을 가림으로써 가짜뉴스에 더 이상 동요되지 않고,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며 작품이 마무리된다.

---

8) 파울 요제프 괴벨스.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393&cid=43667&categoryId=43667.

3.2.2 의상

무대의상이란 무대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성격을 정확하게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객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무대 위에서 착용되는 모든 의사, 신발, 머리 장식, 액세서리 등이 포함되며 그래서 무대의상을 '배우가 입는 배경이다'라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관객에게 극의 분위기,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등장인물의 신분, 사회계층, 직업, 연령, 성격, 추구하는 가치까지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작품 전체 분위기와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어 극의 스타일을 창출한다(신경섭, 조규화, 1998).

무대의상은 작품의 예술성, 성격, 내용, 주제 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시각적 만족감을 전달하며, 공연자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의상을 통해 성별,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등과 정서적 상태와 같은 추상적 이미지도 나타낼 수 있다(이선초, 2007).

무용 작품「Hush」에서 의상은 무대 배경과 무용수의 역할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주로 착용하는 셔츠와, 바지를 의상으로 선정해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 속 대중들을 나타내었다. 또한, 무용수들의 의상을 셔츠와 바지로 통일한 의의는 가짜뉴스에 있어 생산자, 유포자, 현혹되는 대중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임을 강조한다.

[그림 3-1] 무용수 1 의상

[그림 3-2] 무용수 2 의상

[그림 3-3] 무용수 4 의상

[그림 3-4] 무용수 3 의상

[그림 3-5] 무용수 3 의상 2

〈그림 3-4〉, 〈그림 3-5〉와 같이 무용수 3이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고 1장에서 출연·퇴장 후 원피스로 환복하여 4장에 재등장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갈등이 최고조의 이르는 작품의 마지막 단계를 보조하는 것으로 다른 무용수들의 의상과 차별을 두었다. 의상 색상은 작품 속 무용수들의 캐릭터에 따라 아래〈표 3-3〉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표 3-3] 색체의 상징적 의미(이현진, 2008)

색명	연상언어
빨간색	불, 빛, 열, 정신적 광명, 남성, 활력, 풍요, 피, 전쟁, 범죄, 복수, 분노, 승화, 영감, 부활, 사랑, 용기, 탐험, 청렴
노란색	태양, 영웅, 지성, 사랑, 관대, 불변, 부와 권력, 풍요, 위엄, 보수, 붕괴, 가을, 선정, 우울, 적의, 변덕, 무기력
주황색	불, 긍지, 야심, 열, 정욕, 결혼, 환대, 박애, 건강, 활력, 악마, 이기심, 잔혹, 질망, 인내, 힘, 태양
초록색	식물, 풍요, 생명, 자연, 부활, 영원, 중립, 수동적, 조화, 충실, 신선함, 평화, 자유, 기쁨, 지혜, 희망, 요정, 부패, 우울, 미련, 美,
파랑색	하늘, 하느님, 영원성, 정신성, 진실, 솔직, 용기, 영광, 공평, 평온, 보수, 내향성, 믿음, 성실, 차가움, 잔혹, 절망, 달, 수동적, 지혜
보라색	성스러움, 국왕, 귀족 색, 죽음, 상복, 폭행, 순교, 단식, 절제, 정의, 영웅, 위엄
분홍색	연애, 명예, 기쁨, 애착, 부귀, 공로, 선동, 호감
갈색	늙음, 숙련, 노련, 완숙, 교활, 불신, 미움
흰색	순결, 정절, 완전성, 광명, 계시, 진리, 존엄, 고귀, 환희, 이성, 주간, 무의식, 평화, 자비, 차가움, 알기 쉬움, 죽음, 달
회색	중립, 금욕, 노년, 회고, 애도, 공허, 애매, 무기력
검정색	흙, 비옥, 죽음, 상복, 풍요, 부패, 밤, 자궁, 실수, 무지, 지혜, 악, 죄, 악마, 미신, 슬픔, 위험, 비판

무용수 1은 가짜뉴스로 대중을 선동하는 권위 있는 사람을 암시하고자 남성, 피, 전쟁, 범죄, 분노를 연상하는 붉은색 셔츠와 교활, 불신을 연상하는 갈색 계열의 바지를 착용하여 가짜뉴스 생산자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무용수 2는 무용수 1의 선동에 따라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 진실을 보는 사람으로 보수, 수동적, 진실, 용기를 연상하는 파란색 셔츠를 착용하였고, 무용수 1의 의상과 대비되는 셔츠 색상으로 역할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무용수 3의 역할은 가짜뉴스에 계속해서 선동되는 대중을 표현한다. 이에

따라 1장에서는 영원, 중립, 수동적, 조화, 미련을 연상하는 초록색 계열의 셔츠를 착용하였고, 4장에서는 믿고 있던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무용수 1, 2, 4와 달리 또다시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자의적인 캐릭터로써 무용수 1, 2, 4에 의해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죽음, 실수, 무지, 비판, 미신을 연상하는 검은색 의상을 선정하여 의상과 무용수 역할을 연관 지었고, 유채색의 의상을 입은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무채색의 의상으로 차별성을 두어 작품의 고조되는 분위기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무용수 4는 대중으로써의 유포자,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으로 무용수 2와 마찬가지로 믿음, 수동적, 절망, 진실, 용기를 연상하는 파란색 셔츠를 착용하여 유포자로써 거짓을 믿는 수동적인 사람의 역할을 내포하고, 진실을 깨달은 후 혼란스러움과 절망, 그럼에도 중립을 지키고, 진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표현한다.

3.2.3 조명

조명은 극적 표현에 가장 중요한 시각 매체로서 무용의 다른 구성 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무대를 형상화 한다. 무용 조명의 효과는 빛의 여러 형태와 각도를 이용하여 신체의 아름다움을 무대상에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연기 구역이나 강조를 통하여 무대 공간을 3차원적으로 형상화 시킬 수 있으며, 색(色)의 활용 속에 작품의 분위기를 극대화 시킨다(신 호, 2007).

무용 조명의 기능은 관객에게 주요 장면을 강조하거나 혹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가시화의 기능을 하며 정서와 감정 등을 조명의 분위기를 통해 강조한다(장소정,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무용수들의 등·퇴장, 동선과 장면 변화, 소품 강조, 장면의 내재된 의미와 음악 분위기에 따라 조명을 구성하여 「Hush」 의 연출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도입부에서는 상수 대파 조명을 통해 길 모양으로 조명을 만들어 무대 바닥에 사선으로 깔린 나무 합판을 비춤으로써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현 사회현상을 '뉴스의 길'이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나타낸다. 이에 따라 합판 위에서 행해지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강조하여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서 1장에서 등장하는 무용수들의 동선 확장에 따라 탑 조명, 사이드 조명을 추가하여 장면 전환을 보여주었다.

2장에서는 파란색 계열의 전체조명을 주로 사용하며, 빠른 속도와 에너지 있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조함으로써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소품을 활용한 정보의 홍수, 불어나는 가짜뉴스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파란빛의 조명을 통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진실을 의미하는 소품을 핀 조명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이후 믿고 있던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무용수들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고조되는 움직임을 전체조명으로 무대를 확장시켜 드러내었다.

4장에서는 진실과 거짓의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으로 계속되는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주고자 조명 톤을 낮추었고,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의미와 상반되는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오는 몰입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작품의 마무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조명을 사용하여 무용수 1, 2, 4가 무용수 3을 소품으로 서서히 가림과 동시에 조명의 fade out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3.2.4 음악

무용은 시각, 청각을 통해 관객에게 의미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음악은 무용가와 관객 사이를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며 관객들은 무용가의 신체 움직임을 보는 동시에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이입하고 몰입하게 된다(이소연, 2009).

본 연구자는 무용 작품 「Hush」의 안무적 효과를 위해 작품과 어우러지는 총 6가지의 음악을 선정하였으며 작품에 사용한 음악은 다음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4] 음악 구성

장면	음악
도입부, 1장	1. Free Radicals, Track 1 · David Hudson 2. Warrama · David Hudson
2장	3. Ben Frost - Wake Up! 4. Ben Frost - △△ ▽△▽▽ ▽ ▽▽△▽ △▽△ ▽△▽
3장	5. Ben Frost - Reality, Or A Construct Of One
4장	6. Ben Frost - At Hjælpe Hendes Sjæl På Vej

본 연구자가 작품에 사용한 음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도입부 & 1장에서 사용한 음악은 Free Radicals, Track 1 · David Hudson, Warrama · David Hudson이다.

Free Radicals, Track 1 · David Hudson은 중얼거리는 듯한 언어가 반복되

는 음악으로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대중들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음악을 통해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무용수 4의 솔로 움직임 보조와 분위기 전환을 위해 Warrama · David Hudson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질감의 움직임을 박자감 있는 기계적 사운드로 풍성하게 하였다.

2장에서 사용한 음악은 Ben Frost – Wake Up!, Ben Frost – △△ ▽△ ▽▽ ▽ ▽▽△▽ △▽△ ▽△▽ 이다.

2장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Ben Frost – Wake Up!은 도입부가 잔잔하게 시작하며,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효과가 있다. 뒤이어 나오는 긴장감 있는 사운드로 빠르고 다이나믹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고자 사용하였고, 2장에서 이어지는 3인무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짜뉴스를 빠른 박자의 Ben Frost – △△ ▽△▽▽ ▽ ▽▽△▽ △▽△ ▽△▽을 선택하여 작품의 의미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 사용된 음악은 Ben Frost – Reality, Or A Construct Of One으로, 2장의 마무리부터 음악의 도입부가 사용되어 3장까지 하나의 음악을 사용한다. Ben Frost – Reality, Or A Construct Of One은 박자감 있는 도입부에서 서정적인 고요한 사운드로 이어지는 음악이며, 작품「Hush」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써 음악의 제목과 분위기가 작품과 어우러지며, 작품 속 의미 전달에 적합하여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Ben Frost – At Hjælpe Hendes Sjæl På Vej를 사용하였다. 거의 무음에 가까운 잔잔한 분위기의 곡으로 중간중간 가사를 특정하기 힘든 구슬픈 목소리의 노래가 삽입되어 본 연구자는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변되는 느낌을 받아 본 음악을 작품의 마지막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3.2.5 소품

오브제는 작품에서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며 작품과 관객, 안무가와 관객을 연결하는 소통의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오브제는 창작 자극 미적 효과와 더불어 의미의 전달과 소통이라는 매개체적 역할의 수행도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안무가는 스스로 독창적인 창작과 미적 경험을 제공할 표현, 사상의 소통이라는 오브제의 활용 가치 아래에 균형적인 작품 창작의 설계를 해야 한다(박지현, 2015).

본 연구자는 작품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표현 방법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소품을 활용하여 작품「Hush」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그림 3-6] 나무 합판

[그림 3-7]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

무용 작품「Hush」에서는 나무 합판(180x60)을 무대 세트 및 오브제로 사용하였으며, 총 5장의 합판을 이용하였다. 이는 작품 안에서 가짜뉴스, 거짓 정보, 진실을 보는 창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활용 방식 연구에 따라 합판을 사용하였다.

1장에서는 무대 위에 신문지를 붙인 4장의 합판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가

짜뉴스가 도래하는 현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작품에 투영하였고, 무용수들이 합판 위 혹은 움직임 사이에 합판을 의식하며 움직임으로써 작품 속 배경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합판의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불어나는 거짓 정보를 파도라는 이미지에서 착안하여 합판을 동그랗게 말아 이를 표현하였으며, 의미 표현과 더불어 합판의 자연스러운 위치 변화를 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총 4장의 합판을 겹쳐 세로로 세워 펼쳐내어 책의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으며, 이땐 진실을 드러내는 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림 3-8] 2장에서 사용된 소품

[그림 3-9] 3장에서 사용된 소품

4장에서는 마지막 장면으로써 앞 장과 합판 이미지 차별성을 두고자 신문지를 붙이지 않은 나무 합판을 사용하였고, 무용수가 합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통해 또다시 반복되는 가짜뉴스와 선동되는 사람을 표현, 합판으로 무용수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고,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림 3-10] 4장에서 사용된 소품

[그림 3-11] 돼지 가면

[그림 3-12] 무용수 1 착용 모습

작품「Hush」에서 사용된 두 번째 소품은 돼지 가면으로 도입부에서 무용수 1이 돼지 가면을 착용하여 등장함으로써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강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가짜뉴스의 생산자라는 역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Ⅳ. 작품 분석

1. 작품 제목 : 「Hush」

본 연구자는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에서 대중들은 무분별하게 정보를 신뢰하고 퍼뜨리지만, 결국 진실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와 무책임한 침묵만이 남는 사회현상을 상징하고자 명사로서 침묵, 고요를 뜻하는 「Hush」를 작품 제목으로 선정하였다.

2. 작품 주제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짓 정보를 분별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3. 작품 의도

우리는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탈진실의 사회를 살고 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사실과 상관없이 곧이곧대로 진실이라 여기며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단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오가는 말로도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붕괴되었을 때 큰 상실과 갈등, 무책임과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탈진실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계속해서 자문해 나가는 태도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현명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짜뉴스를 주제로 작품 안에서 도입부를 포함한 총 5장의 장면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4. 작품 내용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미디어가 삶의 환경이 된 사회, 그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선동하는 이미지와 표현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점점 거짓에 현혹되고, 선동되는 사람들, 진실이라 믿고 있던 것들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고 무책임한 피해만 남긴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중립을 지키고, 진실을 보려고 한다.

이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보이는 대로 믿으며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거짓보다 진실이 힘을 가진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

4.1 도입부 & 1장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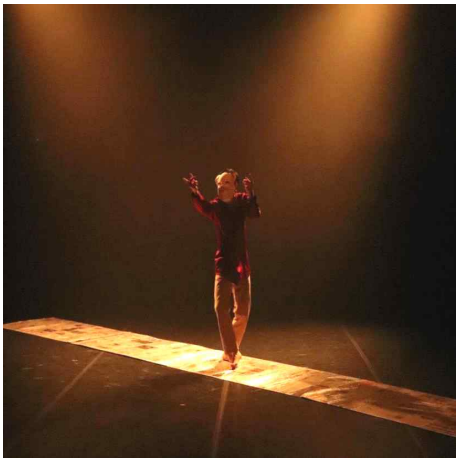
도입부 & 1장에서는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현 사회의 단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디어가 일상 깊이 파고든 현 사회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 신문지를 감싼 나무 합판을 무대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현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생산자와 유포자, 뉴스 소비자의 구조 안에서 도래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도래하는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표현하고자 가짜뉴스 생산자의 선동을 따라 현혹되는 대중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도입부에서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정치인, 언론인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 신문지를 붙인 나무 합판 위에서 돼지 가면을 쓴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가짜뉴스 생산자라는 무용수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돼지 가면을 착용하였으며, 무용수의 움직임은 역사상 최악의 선동가로 기록된 독일의 정치인 요제프 괴벨스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의 나오는 몸짓에서 영감을 받아 제스처와 마임으로 풀어낸다. 무용수 1이 사선으로 깔린 나무 합판 위를 걸어 다니며 말을 전하는 듯한 익살스러운 움직임과 손동작을 활용한 제스처를 통해 가짜뉴스로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을 신체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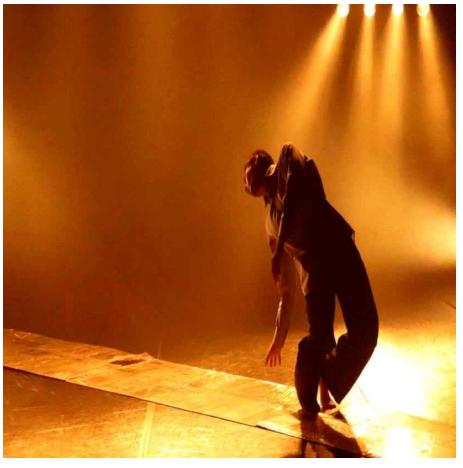


[그림 4-1] 가짜뉴스 생산자

[그림 4-2] 가짜뉴스를 보는 사람들

이어서 〈그림 4-2〉와 같이 무용수 2, 3이 나무 합판 위를 천천히 걸어 나와 접촉 움직임을 행함으로써 가볍게 가짜뉴스를 접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을 표현하였다.

[그림 4-3]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 1



[그림 4-4]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 2

〈그림 4-3〉, 〈그림 4-4〉는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대중을 표현한 장면으로 무용수 2, 4가 합판 위에서 낮은 높이의 플로어 움직임을 주로 행하며, 시선을 합판에 고정한 채 움직임으로써 앞선 무용수 2, 3이 그저 가볍게 뉴스를 보고 넘기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과 달리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선동당하고, 현혹되는 대중을 표현한다.

4.1.3 음악과 조명

도입부 & 1장에서 사용한 음악은 Free Radicals, Track 1 · David Hudson, Warrama · David Hudson이다.

도입부에서 사용한 Free Radicals, Track 1 · David Hudson은 중얼거리는 듯한 사운드가 반복되는 음악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과 현혹을 표현하기 위해 대중들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선택하였으며 더불어 무용수들의 신체 언어를 보조하여 보는 이들의 해석을 돕고자 하였다.

1장에서 무용수 4의 등장부터 시작되는 Warrama · David Hudson은 박자감 있는 다소 밝은 분위기의 기계음이 반복되는 음악으로 같은 장면에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의 분위기 전환과 무용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음악과 대비시켜 무용수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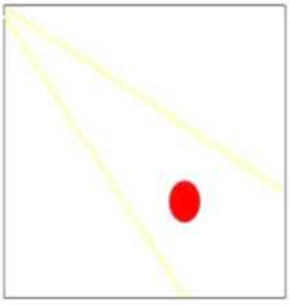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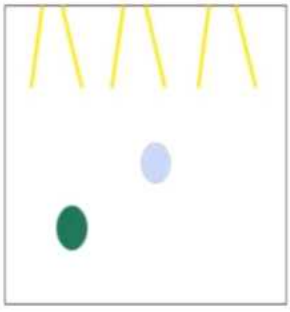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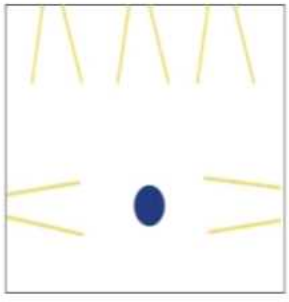
도입부에서 조명은 엠버 톤의 상수 대파 조명을 사용하여 길 모양의 조명을 통해 사선으로 깔린 신문지를 비추어 뉴스의 길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상 하수 대파, 사이드 조명으로 전환하여 무용수들의 동선과 움직임 분위기에 따라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조명 분석표에서 무용수 기호는 무용수 등장 순서, 의상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4-5] 무용수 조명 기호

[표 4-1] 1장 조명 분석

조명	이미지	세부 분석
		길 모양의 조명으로 사선으로 깔린 나무 합판을 비춰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길을 표현함
		탑 조명을 이용해 무대를 밝혀 소품과 무용수들을 전체적으로 비춤으로써 무용수들의 동선 확장, 움직임을 강조함
		고조되는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조명의 밝기를 높이고, 탑 조명과 사이드 조명을 동시에 밝혀 합판 위에서 움직이는 무용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함

4.2 2장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장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나르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표현하고자 2명의 무용수가 장면을 구성하였고, 이어서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대중들을 표현하기 위해 2인무에서 3인무로 움직임을 확장하였고, 이는 가짜뉴스 안에서 전통적인 언론인과 대중들의 경계 없이 누구나 뉴스를 생산, 유포,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디어상에서 정보가 확산되고, 쏟아지는 가짜뉴스의 범람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 합판을 동그랗게 말아 파도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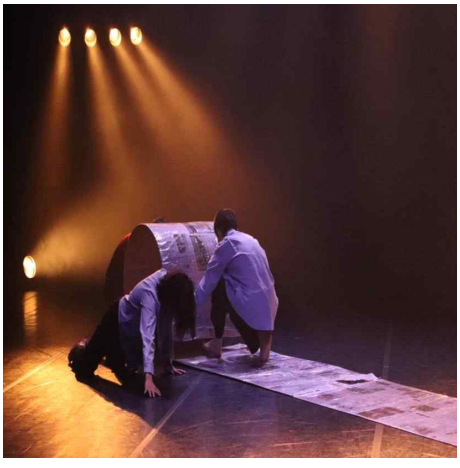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장에서는 유포자들에 의해 신속하고 넓게 퍼지는 거짓 정보를 나타내고자 무용수 1, 4의 2인무로 장면이 시작된다. 무용수 4는 1장에서의 솔로가 끝나고 합판을 따라 걸음으로써 2장과 장면을 잇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이어서 무용수 1도 합판을 따라 걸어 나와 무용수 4와 마주치고 무용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때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수축(contraction), 뛰어오르는(jump), 움직임을 잠시 멈추는 holding으로 구성되었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 변화를 통해 움직임의 강약 조절을 하였고, 무용수들의 높낮이 조절과 다이나믹한 움직임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움직임에 내포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4-6] 가짜뉴스 유포자

[그림 4-7]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사람들

유포자들에 의해 퍼진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대중을 표현하고자 무용수 2가 등장하여 3인무로 확장하여 무대 공간을 채우고, 합판에 시선을 둔 상태로 정지하여 뉴스를 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4-8]
파도처럼 불어나는 가짜뉴스

[그림 4-9]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가짜뉴스를 표현하기 위해 합판의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합판을 동그랗게 접어 파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인식한 무용수가 솔로 움직임 사이에 동그랗게 말린 합판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다니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휘말리는 사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후 무대 상수 상측으로 나무 합판을 이동하여 무용수 3명이 합판 앞에 둘러앉아 엎드렸다 일어나거나, 합판 위로 무너지는 행위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을 움직임 언어로 표현하고, 무용수 3명의 같은 움직임을 통해 정보를 퍼뜨리는 유포자와 그 정보를 신뢰하는 대중의 잘못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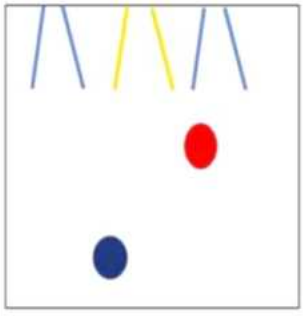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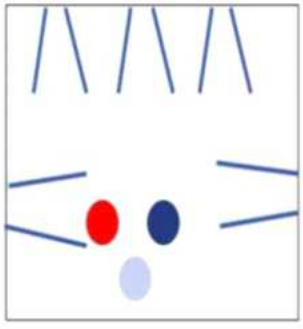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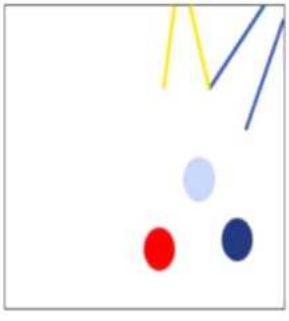
4.2.3 음악과 조명

2장에서 사용한 음악은 Ben Frost - △△ ▽△▽▽ ▽ ▽▽△▽ △▽△ ▽△▽(음악 제목은 기호로 되어있다.), Ben Frost - Wake Up! 이다.

2장에서 무용수 1, 4의 2인무에 사용된 Ben Frost - Wake Up!은 도입부가 잔잔하게 시작하며, 음악의 스산한 분위기를 통해 관객을 집중시키고자 하였고, 뒤이어 나오는 긴장감 있는 사운드로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와 뉴스 유포자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이어지는 3인무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짜뉴스를 표현하기 위해 드럼 사운드로 이루어진 박자감 있는 Ben Frost - △△ ▽△▽▽ ▽ ▽▽△▽ △▽△ ▽△▽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주로 푸른 빛의 조명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정보의 홍수, 파도라는 이미지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고, 무용수들이 무대 상수에서 합2판 앞에 모여 앉은 부분에만 조명을 비춰 관객들의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표 4-2] 2장 조명 분석

조명	이미지	세부 분석
		유포자들에 의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표현하는 장면으로 탑 조명으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강조함
		불어나는 가짜뉴스를 정보의 홍수, 파도에 비유하여 표현한 장면으로 바다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주고자 파란빛의 전체조명을 활용함
		조명을 무용수들 위로만 비춰 무대 상수 다운스테이지에서 행해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시킴

4.3 3장

4.3.1 내용 및 장면 의도

3장은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앞서 가짜뉴스에 선동되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붕괴되고,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뉴스 생산자, 유포자, 수용자 그 경계는 모호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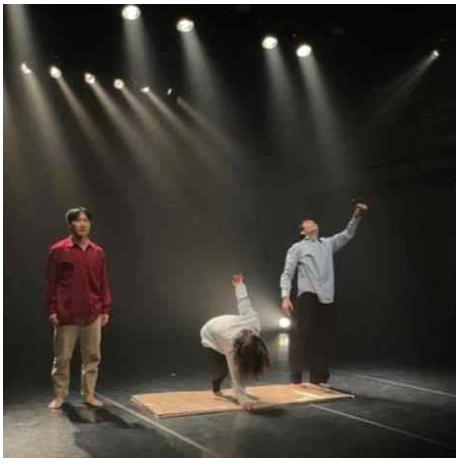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장에서는 진실을 마주한 대중들을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무대 중앙을 진실을 마주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였고, 무대 상수에서 중앙으로 무용수들의 동선이 이동된다. 무용수 1, 4가 나무 합판의 양측을 마주 들고, 가로로 세워진 무용수 2를 가린 채 동선을 이동한 뒤 무대 중앙에서 나무 합판 4장을 세로로 세워 무용수 2 다리에 고정하여 펼쳐 책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진실을 보는 장면을 표현한다.

무용수 1, 4가 아래에서 합판을 받치고, 무용수 2가 합판을 한 장씩 넘기면서 책을 읽는 듯한 움직임을 행한다. 또한 객석과 합판을 번갈아 가면서 시선을 이동하는 행위를 통해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합판이 마지막 장까지 넘어가고 진실을 깨달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함을 무용수들의 무너지는 움직임과 3인 군무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거짓 정보에 폐해를 호소하고자 하였다. 이때 3인무에서는 미끄러짐(sliding), 바닥에서 행해지는 (floor movement), 회전(turn)과 같은 동작을 통해 움직임을 고조시켜 무용수들의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였다.

[그림 4-10]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그림 4-11] 마주한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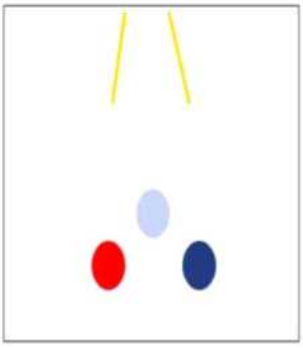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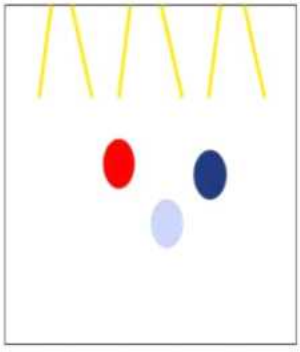
[그림 4-12]
진실을 깨달은 후 공허한 감정

[그림 4-13]
혼란스러운 감정

4.3.3 음악과 조명

3장에서 사용한 음악은 Ben Frost - Reality, Or A Construct Of One으로, 2장의 마무리부터 음악의 도입부가 사용되어 3장까지 하나의 음악을 사용한다. Ben Frost - Reality, Or A Construct Of One은 박자감 있는 도입부로 시작하여 서정적인 고요한 사운드로 이어지는 음악이며, 작품「Hush」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써, 진실을 마주한 뒤에 무기력하고 허무한 감정이 음악의 쓸쓸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의미 전달에 있어 그 효과를 더하고자 사용하였다.

[표 4-3] 3장 조명 분석

조명	이미지	세부 분석
		3장은 작품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무대 중앙에 핀 조명을 비춰 무용수와 소품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무용수들의 움직임, 동선 이동, 작품의 고조되는 분위기를 부각시키고자 밝기를 높인 전체조명으로 무대를 확장시켰다.

3장에서 조명은 무용수들이 무대 중앙에서 합판을 펼쳐 책의 이미지를 시각화했을 때 핀 조명을 사용하여 무용수 2와 나무 합판을 주로 비춤으로써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자 하였고, 이어지는 무용수들의 3인무에서 고조되는 감정과 무용수들의 신체 움직임을 강조하여 보여주고자 전체조명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4.4 4장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4장에서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고, 반복되는 피해에도 계속되는 가짜뉴스, 그 안에서 개인이 중립을 지키고 거짓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작품의 최종 메시지를 전달한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장에서는 마지막 장면으로써 다른 무용수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무용수 3이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며 신문지를 붙이지 않은 나무 합판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 나옴으로써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는 사람을 표현한다.

[그림 4-14] 반복되는 가짜뉴스

[그림 4-15]
가짜뉴스 피해를 막으려는 사람들

[그림 4-16]
선동된 사람을 막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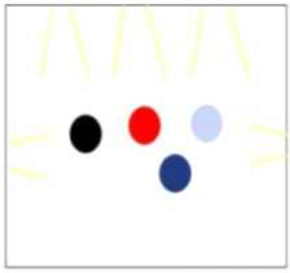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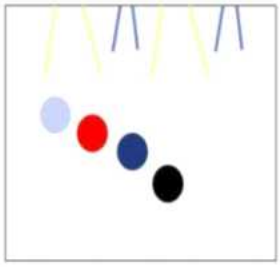
[그림 4-17]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

무용수 1, 2, 4는 앞서 행해진 3인무를 마치고 합판을 들고 걸어 나오는 무용수 3을 바라보다가 줄을 지어 뒤따라간다. 이후 나무 합판으로 무용수 3을 가리면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막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대중을 표현한다.

4.4.3 음악과 조명

4장에서는 Ben Frost – At Hjælpe Hendes Sjæl På Vej를 사용하였다. 무음에 가까운 잔잔한 분위기의 곡으로 중간중간 가사를 특정하기 힘든 구슬픈 느낌으로 노래가 삽입되어 본 연구자는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변되는 느낌을 받아 본 음악을 작품의 마지막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표 4-4] 4장 조명 분석

조명	이미지	세부 분석
		진실을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또다시 선동되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체조명으로 무대 전체를 비춤
		선동당한 사람을 막고자 따라가는 장면으로 조명 밝기를 낮춰 비춤으로써 몰입감을 주고자 함
		무용수 1, 2, 4가 소품으로 무용수 3을 가림으로써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소품이 무용수를 가림에 따라 조명이 fade out되면서 작품이 마무리됨

4장에서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전체조명 위주로 조명을 활용하였고, 무용수 3의 등장에 따라 파란 계열의 조명을 어둡게 전환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무용수들이 무대 중앙에 모였을 때 무대 중앙을 중점으로 조명을 비춰 관객들의 시선을 무용수들에게 집중시키고자 하였으며, 무용수 1, 2, 4가 나무 합판으로 무용수 3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조명, 음악의 fade out과 동시에 작품이 마무리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가짜뉴스를 주제로 제작한 무용 작품「Hush」에 대한 연구·작품 분석이다.

본 연구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할 뉴스마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바라본 대중들의 태도는 이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현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작품 주제로 다루는 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한 전달을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이론·학술적 근거에 접근하였으며,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본 연구자는 가짜뉴스와 대중, 그리고 진실 이 세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을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로 현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대하는 대중들을 표현하기 위해 각 장마다 무용수들의 캐릭터를 뉴스 생산자, 선동당하는 대중, 유포자, 진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연구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무용수들의 몸짓만으로 자칫 다른 내용을 전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나무 합판(180x60)에 신문지를 붙여 뉴스라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작품은 무용수들의 캐릭터, 소품의 변화, 음악의 분위기, 무용수들의 감정, 움직임 변화, 마지막 장면에서의 무용수 의상 변화 등으로 작품이 진행되며, 그 안에서 내포된 의미를 보는 이들이 연구자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가짜뉴스의 파급력과 그 피해는 명확하지만, 실제 가짜뉴스로 유포된 사례를 분석할 때 마저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가십거리가 많았다는 점에서 연구자 또한 가짜뉴스를 접하는 수용자로서 그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작품 창작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 사회적 현상을 담고 있는 작품인 만큼 신체 움직임을 주 언어로 하는 현대무용의 제한점에 따라 작품의 배경 설명의 한계점이 있었고, 의미 변질, 보는 이들의 해석을 의식하여 다소 설명적이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 본인이 제시하는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전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본 연구자 또한 뉴스를 대하는 태도에서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가짜뉴스가 계속되는 사회를 바꾸거나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문제를 인식하고, 분별력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조금씩 중립을 지키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면 거짓보다 진실이 힘을 가진 세상이 올 것이라 희망한다.

본 연구자는 이 과정을 발판으로 작품에서 소품을 통한 설명 혹은 캐릭터를 부각하기보다 움직임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에 필요한 많은 이야기를 무용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많은 무용가들이 사회적인 이야기를 무용 작품에서 다룬다면, 무용도 타 장르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구본권, 월컨, 설팅. (2020). 포스트휴먼과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현상은 왜 문제일까?. Horizon, 6, 20.

권오성. (2017). **글로벌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가짜뉴스 규제정책 연구 : 구글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서울.

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3(1), pp. 33-68.

문소영. (2020).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미친 언론의 역할과 책임: 언론인의 '허위성' 인식을 중심으로**(국내박사학위논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서울.

박아란. (2019).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56(2), pp. 113-155.

박지현. (2015). **오브제의 기능으로 본 무용창작: 작품「Interaction」을 중심으로**(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박진우. (2019). **가짜 뉴스 수용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 수용자의 편향적 매체 지각과 편향적 정보처리,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구조 인식을 중심으로**(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진우. (2021). 팩트체크 뉴스 정보원에 대한 우호도와 뉴스 품질인식이 가짜뉴스 인식과 신뢰, 구전의도, 확증 편향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OUGHTOPIA, 36(2), pp. 37-67.

선혜윤. (2018). **연예인 성범죄 뉴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인식연구**(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송정민, 김범수, 이병재. (2023). 탈진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2(2), pp. 91-124.

신 호. (2007). 조명을 통한 무용 예술의 무대 공간 시각화 방안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7(1), pp. 75-94.

신경섭, 조규화. (1998). 무대의상의 의미전달에 관한 연구 = 중국 경극(Peking Opera) 을 중심으로. **服飾**, 38(-), pp. 83-100.

안도헌. (2020). 디지털 가짜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증 편향 연구 :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1), pp. 77-105.

양기민. (2005). '연예인 X파일' 방해하기. **문학과 경계**, 5(1), pp. 284-298.

염정윤. (2018).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효과 연구 :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염정윤, 정세훈. (2017).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용 동기. **한국언론학보**, 63(1), pp. 7-45.

염정윤, 정세훈. (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2), pp. 41-80.

오세욱, 박아란. (2017).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이슈**, 3(3), pp. 1-13.

이명미. (2023). 탈진실 시대, 진실전달 방식. **한국언어문학**, 123(-), pp. 245-276.

이선초. (2007). **무용공연에 나타난 작품의상에 관한 연구**(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소연. (2009). 무용 동작과 음악 요소의 일치감에 관한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3(2), pp. 21-52.

이예경. (2012). 확증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교육과학연구**, 43(4), pp. 1-31.

이완수. (2021).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3), pp. 306-375.

이현진. (2008). **색의 상징성에 기초한 아동화의 색채심리 재해석**(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장소정. (2015). 무용안무와 무대조명의 상호적 관계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29(9), pp. 10-13.

정학구. (2020). **탈진실시대의 가짜뉴스 확산과 언론 신뢰도의 관계**(국내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최영준. (2018). 국내외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뉴스 공정성 연구논의 탐색 :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학연구**, 40(1), pp. 22.

최창식. (2021). 가짜뉴스에 대한 감정이 사실 확인 노력에 미치는 영향 :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언론학보커뮤니케이션 이론**, 17(1), pp. 5-53.

허의진. (2022). 라캉의 자본주의 담화를 통해서 바라본 탈진실 현상에 관한 연구. **용봉인문논총**, -(61), pp. 267-309.

황용석, 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1), pp. 53-101.

Lee Mclntyre. (2019).『*Post-truth*』. 서울:두리반

2. 국외문헌

Hart, W., Albarracin, D., Eagly, A. H., Brechan, I., Lindberg, M. J., & Merrill, L. (2009), Feeling validated versus being correct:A Meta-analysis of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Psychol Bull*, 135(4), 555-588.

Kuklinski, J. H., Quirk, P. J., Jerit, J., Schwieder, D., & Rich, R. F. (2000). Misinformation and the currency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 Journal of Politics*, 62(3), 790-816.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Nyhan, B., & Reifier, J.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Vol.32, No.2. pp.303-330.

Pennycook, G., & Rand, D. G. 2020. "Who falls for fake news? The roles of bullshit 66 OUGHTOPIA 36:2 receptivity, overclaiming, familiarity, and analytic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Vol.88, No.2. pp.185-200.

Sears, D. O., & Freedman, J. L. (1967).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Public Opinion Quarterly*, 31(2), 194-213.

Weeks, B. E., & Garrett, R. K. (2014). Electoral consequences of political rumors: Motivated reasoning, candidate rumors, and vote choice during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Internation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6(4), 401-422.

Van Aelst, P. (2016). The 2016 election and the success of fact free politics. In D. G. Lilleker, E. Thorsen, D. Jackson, & A. Veneti (Eds.), US election analysis: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16. England: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인터넷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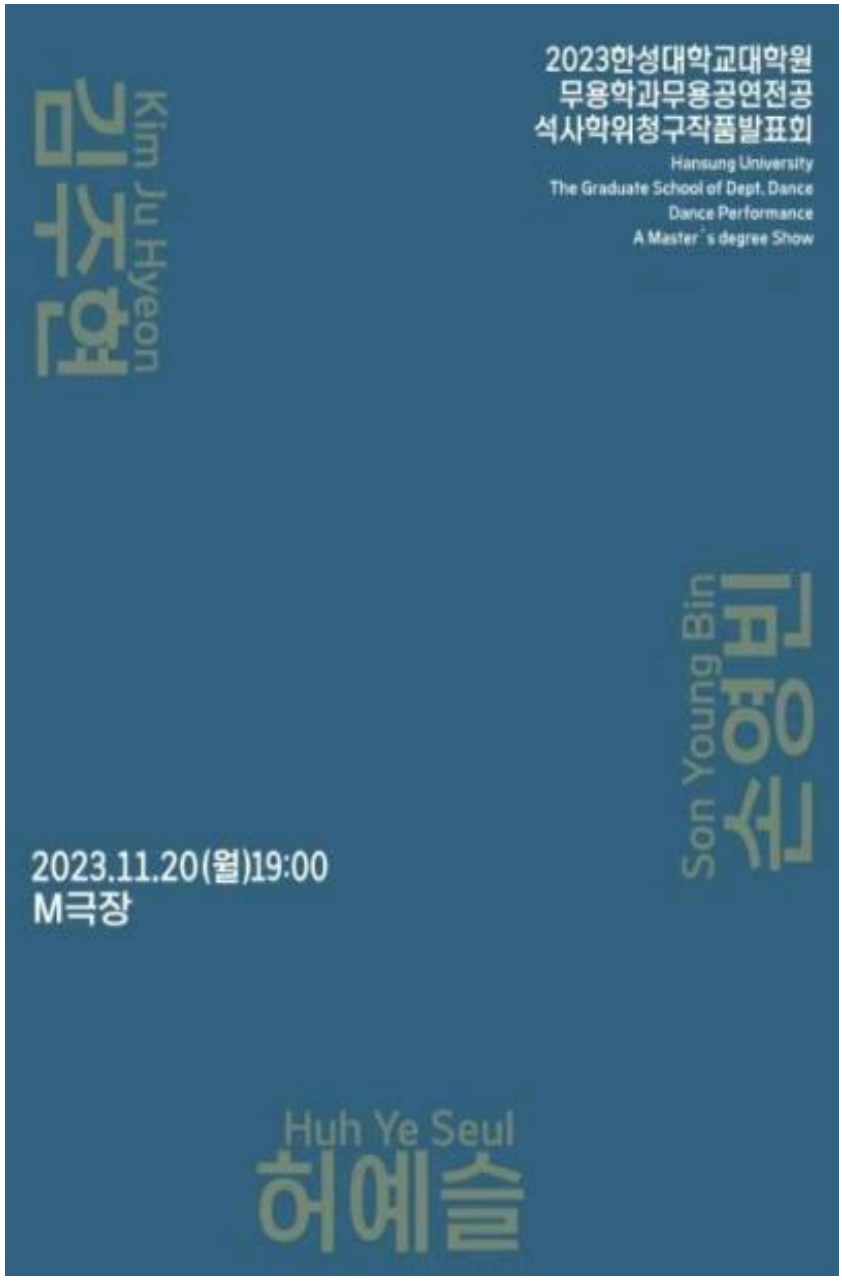
가짜뉴스 . (n.d.).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6539&cid=43667&categoryId=43667.
파울 요제프 괴벨스 .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393&cid=43667&categoryId=43667.
인포데믹스 . (201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3422&categoryId=58479&cid=42171.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 (2017).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92&contents_id=000344023C8E93770EE46E9CC7842BB4.
조지 오웰 . (20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8656&cid=44546&categoryId=44546.
포스트휴먼과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현상은 왜 문제일까 . (2020).
https://horizon.kias.re.kr/14449/.
황색 언론 . (20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50853&cid=58190&categoryId=58190.
황재하. (2023.12.03.). [뉴팬데믹! 가짜뉴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58000005?input=1195m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Hush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19시
장 소	M극장
안무자	손영빈
출연진	손영빈, 김정균, 남지혜, 임지훈
조명감독	조명 디자인 허 환 / 조명 오퍼레이터 전의준
지도교수	정석순
주 최	한성대학교

팜플렛


2023한성대학교대학원
무용학과무용공연전공
석사학위청구작품발표회
Hans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Dept. Dance
Dance Performance
A Master's degree Show
Kim Ju Hyeon
김주현
Son Young Bin
손영빈
2023.11.20(월)19:00
M극장
Huh Ye Seul
허예슬

작품내용

Hush

안무 손영빈

우리는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탈진실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인 현상을 넘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말로도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진실이라 여기며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이 진실일까?

이 작품은 이러한 질문에서 파생되어 사회적 문제인 가짜뉴스를 소재로 풀어내었다. 거짓이 난무하는 탈진실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보고싶은 대로 믿으며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거짓보다 진실이 힘을 가진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

"거짓에 현혹되고, 선동당하는 사람들, 진실이라 믿고 있던 것들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고 무책임한 침묵과 피해만 남긴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중립을 지키고, 진실을 보려고 한다."

출연

ABSTRACT

A Study on the Dance Work 「Hush」

Son, Young-Bi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search and analysis of "Hush," a dance work that expresses the process of approaching the truth by people living in a disillusioned society who are deceived and propagandized by fake news, a social problem.

We are living in a disillusioned society with the advent of fake news. This refers to the general atmosphere of a society that accepts and trusts what it sees, hears, and feels regardless of the facts.

In a society where the media has permeated our daily lives, we are bombarded with unverifiable information, and even the most authoritative news is false, so what can we trust? This problem extends beyond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with lies fueling conflict even among small groups.

In a society where facts are distorted and lies abound, we lose trust in the world and others when what we believe to be true collapses, leaving behind great loss, conflict, and irresponsible damage.

The dance work "Hush" is derived from the researcher's perception of this social problem and asks whether we, who live in a post-truth society, have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th and falsehood, or whether we are being incited and propagandized to believe what we want to believe with confirmation bias thinking, so that we can hope for a world where truth has more power than falsehood.

In order to effectively convey the meaning of the work, I created the work based on academic evidence related to the topic, and tried to convey the message in a total of five scen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props, the movement state of the dancers, and the change of music.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the work, four dancers, including the researcher, studied different characters to compose the scenes, and to create a visual image of the news, which is the theme of the work, wooden plywood with newspaper pasted on it was used as an object and stage set to symbolize fake news, indiscriminate outpouring of information, and the truth in the final scene.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I found that the boundaries between truth and lies have become blurred in the public consciousness in the current society, and the ramifications and damage of turning a blind eye to the truth can be directed at anyone, including oneself. Therefore, through the work "Hush," I would like to suggest the need for a perspective that discerns truth and lies.

【Key Words】fake news, disinformation, incitement, deception, dissemination, spread, truth